

이란산 원유 수입 재개 “임박”

이란, 자국 유조선으로 원유 수송 제안 ... 7월 재개 미국에 통보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갈등으로 EU(유럽연합)가 이란산 원유 수송 선박에 대한 보편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7월1일부터 중단됐던 이란산 원유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산 원유 수입중단 직후 이란이 자국 유조선으로 원유를 실어주겠다고 제안해왔으며 정부 부처의 논의 결과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이란 유조선의 수송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7월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하는 조건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국가에 대해 미국과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미국 국방수권법의 예외조치를 인정받은 상태이다. <저작권자 KBS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13>